

2018, 시리아에 희망을

2018년 현재,
총 1,310만 명의 시리아인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리아 안팎에서 총 580만 명의 어린이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310만 명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10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집을 잃고 국내에서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298만 명의 난민이

포위되어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민 전체가 포위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580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싱가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1-884969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Open Doors(등록번호 성목 라 00066) 부록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1-3)

아시아(Asia)

1일(일) 북한(North Korea)

정치적 상황은 항상 요동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또 남과 북이 하나되어 열방을 섬기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통일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 통일이 복음적인 가치가 구현 되는 통일, 평화로운 통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일(월) 북한(North Korea)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한국 교회를 향해 한반도 복음화와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재빠르게 움직이는 세상과 달리 교회 현장에서 북한이나 통일은 아직도 너무나 멀기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를 성취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일(화) 브루나이(Brunei)

브루나이 말레이족의 문화는 말레이시아 문화와 거의 비슷하지만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은 이슬람교 의식이 대부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

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조화와 순응을 중요시하는 브루나이 말레이족이 전통 이슬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종교 의식을 통해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매주 브루나이의 모든 모스크에서는 종교국에서 배포한 동일한 설교가 선포되고, 금요기도회에 빠지거나 이슬람 규율을 어기는 남자들은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이슬람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 기독교에 가혹한 정책이 풀어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일(수) 부탄(Bhutan)

1990년 이후 부탄 내 기독교에 대한 규제는 다시 강화 되었습니다. 부탄 내 2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은 불교도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과 아름다움의 옷을 입은 이 땅은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어두운 곳입니다. 더욱이 부탄의 기독교인들을 양육할 사역자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부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6월호 동일)

5일(목) 중국(China)

중국 당국은 자국 내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던 기독교계 단체 소속 한국인과 일본인 약 30명을 구속했다고 일본 언론이 지난달 25일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중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이달 초 세계 각지에 지부를 둔 기독교 단체의 신자인 이들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와 중북 국경의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구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 모든 사역자와 지하교인들의 안전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6일(금) 라오스(Laos)

국민의 80%가 자급형 농업에 종사합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기업 민영화 정책 등으로 경제 성장에 힘쓰고 있지만 부정부패와 마약 중독자 증가로 경제 발전이 더욱 더딘 상태입니다. 5,000개의 불교 사원에 비해 교회 건물은 250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략적으로 교회 신축을 방해하고, 기독교인에게 지역 주민과 정부는 위협을 가합니다. *정부의 박해 때문에 가정교회로 흩어진 라오스 그리스도인의 안전과 인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7일(토)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은 자국민의 기독교 개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벗어난 사고 방식조차 모두 반역죄로 여겨집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슬림 무장 단체인 탈레반 치하에 있는 일부 지역은 테러와 폭력이 찢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이 줄어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1만 5천명(0.05%)으로 추정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일(일) 몰디브(Maldives)

몰디브 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많은 11세 정도의 어린이가 성에 노출되며, 대부분 기혼 남성들은 다른 여자와의 접촉을 당연시하며, 대다수가 마약을 경험합니다. 100% 무슬림 국가임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배척, 투옥, 고문이 자행 됩니다. *아름다운 휴양지 몰디브에 빛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곳의 사역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9일(월) 방글라데시(Bangladesh)

군부와 이슬람주의자 세력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도덕한 나라로 평가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구의 절반 가량이 하루에 1달러가 안 되는 생활비로 살아갑니다. 이슬람 극우파에 의한 기독교인과 기독교관련 건물에 대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힌두교 배경의 그리스도인은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가난과 숨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일(화) 인도(India)

기독교인은 '불가촉천민', '달리트'로 분류됩니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달리트'를 겨냥한 범죄가 4만 건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소유한 말을 탔다는 이유로 한 '달리트' 남성이 더 높은 카스트의 마을 사람들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13억 명에 달하는 인도의 전체 인구 가운데 약 2억 명이 '달리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카스트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모두가 자유와 평등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동(Middle East)

11일(수) 시리아(Syria)

250,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3의 아이들만이 학교를 다니며, 먹을 것은 부족합니다. 50% 이상의 의료시설은 파괴 되었고, 냇을 잃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절반은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살수 없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UN과 세계열강들이 함께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일(목)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메카에 있는 무슬림 연맹에서 해마다 막대한 액수의 오일 달러가 이슬람교 전파를 위해 전 세계에 뿌려지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중심 세력으로 악명이 높은 와하비파를 전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들은 이슬람에 우호적인 나라를 후원하며, 모스크를 짓고, 선교사를 보내며, 문서를 인쇄하고, 이슬람 연구 센터를 짓는 서구 학문기관에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쇄소가 있으며, 해

마다 3,000만권의 코란을 찍어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박해는 이슬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사우디의 이슬람 정책이 무력화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3일(금) 이라크(Iraq)

지난 38년 동안 이라크는 계속된 전쟁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라크를 그들이 지속적으로 머물 고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천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고통과 분노 대신에 평화와 기쁨이 나라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4일(토) 예멘(Yemen)

극심한 내전 중에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vbia)로 부터의 포탄 공격이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80%이상의 예멘 국민들이 원조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삶이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불쌍한 국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5일(일)이란(Iran)

이란에서의 박해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광기가 이슬람교적 탄압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란의 이슬람 정부는 1979년 발생한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여깁니다. 기독교는 지탄 받을 만한 서구의 세력이자 이란공화국의 이슬람교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란을 덮고 있는 이슬람의 광기가 사라지고, 빛 되신 그리스도가 온 땅에 비추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앙아시아(Central Asia)

16일(월)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기독교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만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투옥되고, 한 목회자는 은행 계좌를 압수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두 명에게 교도소 이용 비용으로 각자 월급의 15%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침례교회 목회자 부부도 기독교 서적을 소유한 이유로 은행계좌가 동결되었고 교회 자금 모두를 압수 당했습니다. *무슬림 지배적인 이곳에서 0.75%정도의 기독교인이 고립과 박해 가운데 안전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7일(화) 카자흐스탄(Kazakhstan)

카자흐인이 되는 것은 무슬림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990년대 46개였던 모스크는 2000년대에 들어서 1,282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과격 이슬람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전통적인 이슬람교가 강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영역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과격 이슬람의 성장은 기독교인에 대한 납치, 폭행, 테러로 이어

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독교 여성에 대한 납치 소식이 빈번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8일(수) 타지키스탄(Tajikistan)

국민 대부분이(98% 무슬림) 가난에 허덕이고 마약거래상은 번영을 누립니다. 해외 원조에 의존도가 높고 실업률이 높아 850만명의 인구 중 100만명 이상의 남성이 해외(대부분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인구 감소와 교회 지도자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찬송가를 부른 한 목회자는 종교혐오유발 죄목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이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9일(목)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동방정교회를 제외한 기독교 교단의 활동, 심지어 기독교 존재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증가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외국 기독교인은 추방당했고, 몇몇 토착민 목회자는 망명해야 했고 매당은 수모를 겪었으며 심한 벌금을 물거나 투옥되었습니다. 교회는 위협당하고 모임은 금지되었으며, 교회는 등록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용기 있게 굳건히 서며, 이 나라에 있지 않은 기독교인이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Africa)

20일(금) 나이지리아(Nigeria)

지난해 풀라니 무슬림 목동들(Fulani Herders)의 폭력으로 남부 카두나(Kaduna)지역, 538개 마을에서 808명이 숨졌고, 교회 지도자들 5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55억 달러 정도의 농산물 손실이 있었고, 1,422채의 주택과 16개의 교회가 불타 버렸습니다. *남부 카두나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1일(토) 에리트레아(Eritrea)

에리트레아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자의적 체포, 무차별 억류, 납치, 노예화 등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인권 보고관은 에리트레아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정부는 인권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리트레아 시민들의 취약한 인권을 위해서, 특별히 차별과 학대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2일(일) 수단(Sudan)

누바(Nuba) 산 지역에는 많은 교회 공동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오랜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질병과 배

고품으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호 단체의 노력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고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약과 모기장, 식료품이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3일(월) 차드(Chard)

차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부족, 인종,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북부와 남부 지역의 대립으로 안정적인 국가 운영 또한 어렵습니다. 다르푸르에서 결성된 무장 세력과 반란 세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 경제적 발전과 기독교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드 정부의 무능과 부패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한 부족주의로 인한 기독교 박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4일(화) 차드(Chard)

현재 정권은 폭력, 부패, 부족주의 등으로 물들었고 자가와족(Zagahawa)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족, 인종,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북부와 남부 지역의 대립으로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차드와 다르푸르에서 결성된 무장 세력과 반란 세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 경제적 발전과 기독교 사역을 방해합니다. *북부와 남부 모두를 바르게 대변하는 정부가 형성되어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정직하고 헌신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5일(수) 튀니지(Tunisia)

튀니지인 가운데에는 10년 넘게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랜 세월 고립과 가난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오랫동안 지키도록 기도해 주세요. 최근 증가하는 새신자가 안전하고, 담대하며, 효과적인 제자훈련을 받고, 교회와 융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튀니지 기독교인이 복음 전파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고립된 채 숨어 지내는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26일(목) 콩고민주공화국(Republic Of The Congo)

콩고에서는 오랜 기간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집계 결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천 300만여 명으로 작년의 배로 늘었고,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도 770만 명으로 30% 증가했습니다. 집을 잃은 난민도 450만여 명에 달해 20여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7~2003년 내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내전의 종식과 숨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7일(금) 에티오피아(Ethiopia)

수백만 명이 만성 영양 결핍에 시달리지만 외국의 식량 원조에 더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족별·지역별 농업 기반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후원하고, 구조물과 시설물을 확충하여 사회에 만연한 깊은 빈곤을 해결하는 사회경제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교회는 장기적 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박해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으며, 선교에 비전을 가진 교회는 3%뿐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 땅의 주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8일(토) 말리(Mali)

말리 박해의 주요인인 이슬람 탄압으로 인해 5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북부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남부에 위치한 수도 바마코(Bamako)나 중부지방의 마을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에서조차 난민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이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9일(일) 북 아프리카(North Africa)

과거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세력을 확장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금 지원으로 소말리아, 케냐,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 정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손과 발이 묶여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30일(월) 지부티 (Djibouti)

무덤과 건조하면서도 자주 습해지는 환경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기독교인이 매우 적어서 사역자들은 쉽게 낙심하고 소모됩니다. *교육, 공중보건, 문서, 성경 번역, 문맹 퇴치 사역, 청년 사역을 통해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역들이 접촉점이 되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1일(화) 한국오폴도어선교회

오폴도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도우심 속에서 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이사장 및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 사무총장: 이종만 목사, 이사분들, 사역자들). *한국오폴도어가 전세계 핍박 받는 교회들을 위한 애타는 심정과 진심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후원자 분들과 기도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